

# 웹툰 <그녀의 심청>에서의 <심청전> 변용과 수용자 반응 연구 -서사구조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이혜진\*

1. 머리말
2. 현대적 시각으로 고전을 재해석: 웹툰 <그녀의 심청>의 서사 분석
  - 2-1. '성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주
  - 2-2. '남성 중심 서사'로부터의 탈주
  - 2-3. '효도 규범'으로부터의 탈주
  - 2-4. 전통적 권위 질서의 환멸
3. 웹툰 <그녀의 심청> 댓글의 종류와 수용자의 인지적 성향 분석
4. 댓글을 통해 본 수용자의 고전소설에 대한 성찰 양상
  - 4-1. '성 고정관념'에 대한 성찰: 권위 질서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 4-2. 고전 서사에 대한 성찰: 효행 전설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 4-3. 현실에 대한 성찰: 현대적 시각에서 <심청전>에 대한 재고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에 연재가 종료된 네이버 시리즈의 Seri(글)와 비완(그림)의 웹툰 <그녀의 심청>을 대상으로 하여, 댓글 분석 방법을 통해 전통으로부터 탈주한 서사에 대한 수용자의 평가와 반응을 분석하였다.

웹툰 <그녀의 심청>은 전통 서사에 내포된 성 고정관념, 남성 중심 서사, 효도 규범, 권위주의적 질서에 대한 탈주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묘사된 심청은 외모와 효행, 여성성에 대한 기존의 이상적 규범을

---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 수료

거부하고, 여성 간의 연대와 자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서사를 이끌어 간다. 또한 종교 및 부권적 권위에 대한 환멸적 묘사를 통해 전통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며, 젠더 중심 서사구조의 재구성과 확장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댓글 분석을 통해 수용자들이 웹툰 〈그녀의 심청〉에 나타난 탈전통적 서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평가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수용자들은 특히 여성 인물에 대한 공감과 연민, 남성 인물에 대한 비판과 혐오를 통해 전통적 성별 권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들은 고전 서사의 이데올로기를 재고하며, 현실 사회의 성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성찰로 나아갔다.

분석을 통해 수용자는 고전을 단순히 익숙한 이야기로 소비하지 않고, 작품을 계기로 젠더 질서, 도덕규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고전 속 이상화된 효녀상과 남성 중심 권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전이 절대적인 도덕 모델이 아니라 시대와 맥락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할 문화 텍스트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용자 반응은 웹툰이라는 장르가 오락을 넘어, 고전 서사와 현대적 담론을 연결하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유발하는 유효한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그녀의 심청, 심청전, 웹툰, 성 고정관념, 효행 서사, 여성상, 댓글 분석)

## 1. 머리말

본 연구는 2020년 6월에 연재가 종료된 네이버 시리즈<sup>1)</sup>의 Seri (글)와 비완 (그림)의 웹툰 〈그녀의 심청〉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작품 댓글 분석을

1) 웹툰 〈그녀의 심청〉은 2017년 9월부터 저스톤에서 연재를 시작했고, 2019년 9월부터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통해 전통으로부터 탈주한 서사에 대한 수용자<sup>2)</sup>의 평가와 반응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웹툰 <그녀의 심청>은 고전소설 <심청전>을 각색한 작품으로, 인물 설정과 내용에서 원작과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전통 가부장적 질서 아래 그려진 희생적 효행 서사에서 탈주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sup>3)</sup>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웹툰에서 고전소설에 대해 재해석하는 부분, 즉 전통 효행 서사로부터 탈주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과 수용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효’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마음이고,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윤리 가치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전통 문학 작품에서도 부모를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효자·효녀 이야기를 많이 전해 내려왔다. 이 가운데, 자신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효녀 심청의 이야기는 한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효와 관련한 작품으로 꼽힐 수 있다. 심청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효와 존경을 표하였는데, 이는 ‘효’를 이상적 가치로 삼았던 전통 사회의 윤리 관념을 보여준다.

<심청전>은 <춘향전>, <흥부전>과 같이 한국 판소리 소설의 3대 작품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여러 버전으로 변용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

2) 본 연구에서는 웹툰에 대한 독자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 웹툰을 보고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수용자’로 칭한다.

3) 심청을 주인공으로 등장한 웹툰은 많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웹툰은 ‘희생적 효녀 상’, ‘여성스럽고 단장한 심청’, ‘용왕과의 결합으로 귀결되는 전형적 결말’ 등 기존 서사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 웹툰은 남성 등장인물보다 여성 등장인물 간의 연대와 상호 협력을 더 강조하는 면이 있다. 또한 주인공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효녀’가 아니라, 주관적 사고 능력과 뚜렷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며,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즉, 이 작품은 전통적 효행 서사로부터 탈주하여 여성 중심의 서사로 재맥락화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웹툰을 대상으로, 전통 효행 서사와 구별되는 변용 지점에 대해 수용자가 어떠한 반응과 해석을 보여주는지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둔다.

통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존경하도록 요구받았던 전통 사회의 효 문화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효의 의미가 점점 약화하는 경향이 있다. 남은경(2024)은 현대에 <심청전>을 각색한 작품에서, 심청이 원작과 같은 '절대적 효녀'로 등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삶을 지키려는 '전통 윤리에 대한 저항자'로 형상화되며, 이를 통해 효를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4)</sup> 고전소설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창작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새롭게 창작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오늘날에도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sup>6)</sup> 장애 가진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돌보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제와 효 문화가 자녀에게 부모를 돌보는 효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녀가 장애인 부모를 돌보는 것을 필수적인 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 속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녀의 생각이다. 전통적인 인식에 따라 자녀가 장애인 부모를 돌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동시에 칭송을 받아야 할 행위로 여겨졌다.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 교육의 목적으로 전승해 왔다. 하지만 자녀의 시각에서 이러한 효행 서사를 바라보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 <그녀의 심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웹툰은 심청의 시각에서 다시 이 효행 서사를 재해석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고전소설 <심청전>의 일부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인물 묘사, 핵심 서

4) 남은경,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통해 본 한국인의 가치관」, 『동방학』 제51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4, 135-137쪽.

5) 조도현, 「대중문화 코드로 본 <춘향전>의 현대적 변이」, 『한국언어문학』 제7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294쪽.

6) 강진영,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140쪽.

사구조, 그리고 결말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전통 효녀 서사에 새로운 상상력을 부여한다. 웹툰은 한 남매의 대화로 시작되며, <심청전>을 읽은 여동생이 의문을 품는다. “(심청은) 왜 팔려가기로 했는데?”, “심청은 왜 장 승상 부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나서서 죽으려고 한 거지?”<sup>7)</sup>.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며, 장 승상 부인이 대신 300석을 내준다는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웹툰에서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 웹툰에서 작가는 이를 장 승상 부인과 심청 간에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sup>8)</sup> 이 외에도 이 웹툰에서는 원작의 많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하였다. ‘어린 여자아이와 시각 장애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은 여자 아이가 어떻게 단장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 ‘심 봉사에게 300석을 내면 눈을 다시 뜰 수 있다고 알려주는 몽은사 승님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용왕은 꼭 남성인지?’ 등 원작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상적으로 재창조하였다. 이는 전통 서사의 권위에 균열을 내고 고전을 새로운 시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려는 문화적 실천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 고전문학의 서사를 바탕으로 각색한 웹툰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그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주목하고 있으며, 웹툰 자체, 즉 웹툰의 내용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sup>9)</sup> 본 연구의 대상인 <그녀의 심청>과 관련된 연구도

7) 이 내용은 웹툰 0화에 나온 내용이다.

8) 네이버 시리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웹툰의 중국어 번역 버전의 ‘후기’ 편에서는 작가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장 승상 부인이 심청을 위하여 삼백 석의 공양미를 제공하려 하였으며, 심청이 거절 이후에도 심청의 초상화를 소장하고 그를 위해 비석을 세운 이유는 다 심청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9) 이명현, 「웹툰 <도깨비 혼장>에 나타난 고전서사의 현대적 변용」, 『우리문학연구』 제 67집, 우리문화회, 2020, 65-93쪽; 이지원, 「고전 기반 웹툰의 성장서사로서의 가능성 탐구: 단군신화 소재 웹툰 <바로잡는순애보>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4권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지금까지 이 웹툰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웹툰에서 나오는 인물상, 서사구조 등에 집중적으로 접근하였다.<sup>10)</sup> 이러한 연구에서는 웹툰 〈그녀의 심청〉이 전통 서사에 기반을 두면서도 여성 서

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111-140쪽; 이재영, 「고전 소재 웹툰에 나타난 ‘춘향’ 서사의 변주 양상과 의미 - 웹툰 〈광한루 로맨스〉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4권 1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87-99쪽; 장예준, 「웹툰(webtoon)에서의 고전 서사 활용 방안」, 『국제어문』 제75권, 국제어문학회, 2017, 395-428쪽; 장진엽, 「웹툰 〈가담항설〉의 고전 시가/운문 활용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학논집』 제7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221-270쪽; 조리라, 「공존의 관점으로 바라본 고전문학 기반 웹툰의 매체 전환 양상과 의미 - 웹툰 〈바로잡는 순애보〉와 〈간 떨어지는 동거〉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5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795- 804쪽.

- 10) 김강은(2020)은 웹툰의 서사를 분석하여, 이 웹툰은 여성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김강은, 「고소설 문화콘텐츠를 통해 본 여성서사의 새로운 가능성 - 웹툰 〈그녀의 심청〉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177-205쪽; 김선현(2022)은 이 웹툰에서 여성 서사의 재구성하기를 통해 효녀와 열녀의 프레임 뒤에 숨어있는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김선현, 「웹툰에 나타난 심청 서사의 재맥락화-웹툰 〈그녀의 심청〉과 〈삼작미인가〉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65-93쪽; 김수연(2021)은 이 웹툰이 과거의 관점(아버지를 버리지 못하는 관점)에 대해 버리기라는 현대적 관점을 체현하는 것을 밝혔다. 김수연, 「부녀서사의 전통과 현대 콘텐츠의 서사적 분기」, 『문학치료연구』 제61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129-166쪽; 김지령(2021)은 이 웹툰은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비판하고, 새로운 인물 관계와 내적 갈등을 통해 고전의 현대적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고전 서사의 재창작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김지령, 「심청 서사의 현대적 변용」,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서보영(2021)은 이 웹툰에서 여성 간의 연대를 통해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 간의 상호 공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서보영, 「웹툰 〈그녀의 심청〉의 고전소설 『심청전』 변용 양상과 고전 콘텐츠의 방향」, 『어문론총』 제88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35-64쪽; 허윤 (2020)에서도 이 웹툰을 여성 연대를 중심으로 젠더 규범을 재구성하며, GL 적 상상력을 통해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허윤,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여성 간 로맨스—비완seri, 〈그녀의 심청〉(저스톤, 2017~2019)」, 『대중서사연구』 제26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20, 183-212쪽; 류명옥(2022)은 웹툰의 서사와 인물상을 원작에 대한 재해석하다고 지적했고, 고전 서사를 활용한 웹툰은 대중들과 소통함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류명옥, 「웹툰에 나타난 고전 서사 활용의 양상과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54집, 동남어문학회, 2022, 61-83쪽.

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간의 연대, 공감,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도전을 통해 전통적 서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는 이 작품의 의의를 파악하고, 전통 서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웹툰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웹툰에 묘사된 전통적인 효녀상에 대하여 재해석하거나, 전통 서사로부터 벗어난 서사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웹툰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웹툰이라는 플랫폼에서 고전의 현대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면모에도 주목하여, 창작-콘텐츠-수용 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웹툰을 감상하는 행위 자체에 댓글 읽기 과정을 포함되고, 댓글은 웹툰의 대화적 성격을 이루는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sup>11)</sup> 또한, 고전 서사를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은 궁극적으로 현대 대중의 심리적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대 대중이 고전 서사의 매체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댓글 분석을 통해 웹툰 <그녀의 심청>에 대해 수용자의 수용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을 재해석한 이 웹툰에 대해 수용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11) 최기숙, 「Daum 웹툰 <바리공주>를 통해 본 고전 기반 웹툰 콘텐츠의 다층적 대화 양상-서사구조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308쪽.

12) 박수진, 「영화 리뷰에 나타난 수용자 시각 분석과 고전문학교육에의 함의: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을 사례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2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940-941쪽.

를 통해 고전 서사의 현대적 변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댓글 분석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전 서사물을 대상으로 한 웹툰의 댓글 분석을 진행한 선행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댓글 분석하는 방법론 역시 많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최기숙(2019)은 학계적으로 처음 웹툰의 댓글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웹툰 댓글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정리하여, 웹툰 댓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유형을 포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논문에서 지적한 댓글 분류 방법을 참조하여,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최기숙(2019)은 댓글 유형을 6가지로<sup>13)</sup> 나누어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하였으나<sup>14)</sup>,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웹툰 댓글의 실제 내용을 참고하여 댓글 유형을 나누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 2. 현대적 시각으로 고전을 재해석: 웹툰 〈그녀의 심청〉의 서사 분석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존에 〈그녀의 심청〉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웹툰 〈그녀의 심청〉은 전통적인 〈심청전〉의 서사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여, 수용자들의 반응

---

13) 최기숙(2019)은 댓글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①총평: 직관적 반응, 웹툰/그림에 대한 단평, 최고의 웹툰, 추천, 재미, 호기심, 기대; ②감정 반응: 공포, 혐오, 분노, 슬픔, 귀엽다, 공감, 감동, 실망, 감정 이입; ③감상과 비평: 문학적 해석과 비평, 비교문학적 관점, 추리와 예측, 유익함; ④ 지식과 성찰: 윤리, 도덕, 지식, 성찰, 판단; ⑤댓글 평: 수용자 반응 비평, 댓글에 대한 논평; ⑥기타: 콘텐츠와 무관한 내용, 미상(파악되지 않는 줄임말 등), 스포일러 표시가 된 댓글;

14) 최기숙, 위의 글, 317-318쪽.

을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웹툰 <그녀의 심청>은 원작을 기반으로 어떻게 재해석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웹툰에서 원작과 다르게 묘사한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4가지 면으로 정리하였다.

## 2-1. '성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주

### 2-1-1. 여성으로서 갖춰야 하는 규범

“넌 여자라서 업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쉬지 않고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성불할 수 있게 된다고.”<sup>15)</sup>

웹툰에서 '여성이면 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몽은사 스님의 입을 통해 여러 번 언급된다. 우선, 1화에서 몽은사 스님은 심청이 느낀 답답함은 모두 '여성의 업'으로 해석된다. 또한, 4화에서 장 승상이 쓰러진 후 마을에서 장 승상 부인이 재앙이 가져온 여우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몽은사 스님은 이것은 장 승상 부인의 업이고, 업을 청산해야 장 승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몽은사 스님은 마을에서 덕성이 높은 스님으로, 마을 사람의 존경을 받는 캐릭터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마을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몽은사 스님은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대변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과 그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심청은 전통 사회에 대해 반박하는 캐릭터로 볼 수

15) 이 내용은 웹툰 <그녀의 심청> 1화 몽은사 스님의 대사이다.

있다. 웹툰 초기에 몽은사 스님에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웹툰의 후반부에서는 부당함을 깨닫고 과감히 저항한다. 3화 장 승상 부인의 혼례에서 심청은 신부 머리에 꽃을 장식해 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다. 꽃은 여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꽃의 머리를 잘라 장식하는 것은 영원히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시들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밝혔다. 웹툰에는 이처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 묘사가 많았고, 여성으로서 전통문화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체현하였다.

또한 웹툰에는 전통문화에서 여성이 딸로, 어머니로, 그리고 아내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아버지의 시각장애로 인하여 심청은 딸로서 마음껏 웃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바로 마을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이자 계모로 등장하는 장 승상 부인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녀전> 등을 열심히 배우며, 세상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른이 된 후에는 오라비의 관직으로 인해 나이가 많은 장 승상에게 시집가게 되었다. 장 승상 부인은 며느리에게 누명을 썼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선물을 보내 며느리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다. 이는 장 승상 부인이 읽었던 책 속에서 여성 대부분이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쓰러진 후에도 열녀처럼 남편을 위해 희생하기를 요구받는 여성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18화). 그러나 장 승상 부인은 전통적인 인식에 완전히 지배받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자신을 감추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만, 끊임없이 위장하고 거짓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처럼 웹툰 <그녀의 심청>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일방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한 억압과 불평등의 구조를

서사적으로 드러내고 비판한다. 등장인물은 겉으로는 전통의 규범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저항의 내적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고 전통적 여성상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는 고전 서사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던 도덕적 이상, 예컨대 ‘효녀’, ‘열녀’, ‘현모양처’ 등의 이미지가 더 이상 절대적인 도덕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여성 인물이 주체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 전통 질서를 넘어서려는 모습을 강조한다. 결국 이 작품은 여성 인물을 수동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규범과 서사적 권위를 흔들 수 있는 능동적 행위자로 재구성함으로써, 고전 텍스트의 젠더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 2-1-2. 여성으로서 갖춰야 하는 모습

이 웹툰에서 주인공 심청과 관련하여, 여성이 어떠한 이미지를 표상해야 하는지, 대중적으로 칭송받는 효녀 상이 예쁘고 단장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해석 시도되었다. 단장하고 여성성을 갖추며, 주변인의 사랑과 연민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여성스럽지 않으면 주변인의 혐오를 당할 수 있다. 웹툰 <그녀의 심청>에서 이러한 점이 서사를 통해 드러난다. 이 웹툰에서 주인공 심청을 대담하게 묘사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여기서 등장하는 심청의 이미지는 이전의 심청과 관련된 콘텐츠에서 등장한 이미지와 매우 다르다.



<그림1> 거지 심청(0화)

심청의 첫 등장은 거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림1>) 웹툰 1화의 제

목도 이를 반영하여 ‘거렁뱅이’로 붙여졌다. 1화에서 등장한 심청은 말이 거의 없으며, 매일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니고, 도둑질까지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밖에 나가면 주변 사람이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 모두 심청이라는 인물을 무시하게 되었다. 즉, 첫 등장의 심청은 마을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런 심청의 모습은 웹툰 6화까지 이어졌다. 웹툰 제6화에서 장 승상 부인이 심청의 목욕을 도와주었으며, 14화에서는 심청에게 새 옷을 주었다. <표 1> 그러나 그 이후로 등장하는 심청은 다른 <심청전>을 원작으로 제작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그려진 아름답고, 단정하며 깔끔한 여성상과 비교하면, 여전히 전통 관념에서 이상적으로 규정한 여성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콘텐츠 이름	<그녀의 심청>	다른 콘텐츠에 등장한 심청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	LG 전자 광고	발레 <심청>
심청의 이미지				

<표 1> 다른 문화콘텐츠에서 등장한 심청의 모습

<심청전>을 원작으로 한 다른 콘텐츠에서 심청은 보통 한복을 입고, 단정한 용모와 강한 여성성을 지닌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웹툰 <그녀의 심청>에 등장하는 심청은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형클어진 머리와 독특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미지는 기존에 사람들이 상상해 온 ‘효녀 심청’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웹툰 27화에 나오는 심청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효녀 심청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진다. 27화에서 장 승상 부인은 심청에게 단정하고, 여자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을 사람에게 말해야 동정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장 승상 부인의 조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심청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였으며, 심청은 ‘효녀’라는 명칭을 얻음과 동시에 마을에서의 지위가 상승한다.



<그림 2> 27화에서 등장하는 심청의 모습

또한 웹툰 67화에서도 외모와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심청이 제물로 결정된 이후에 한 화원이 심청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장면이 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심청의 머리가 너무 짧고 형클어져 있어 효녀에게 기대하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웹툰에서는 심청의 외모적 변화에 따라 주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전통적인 서사에서 여성의 외모에 부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2. ‘남성 중심 서사’로부터의 탈주

웹툰 <그녀의 심청>의 제목을 통해 이 작품은 여성 간의 연대를 강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목 중의 ‘그녀’는 장 승상 부인을 가리키고, 웹툰에서는 주로 심청과 장 승상 부인 간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작 <심청전>의 결말에서는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용왕과 만나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눈이 뜨는 서사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웹툰 <그녀의 심청>은 원작과 다르게 전개된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후 용왕과 만나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인당수에 빠졌지만, 생존한 심청이 장 승상 부인과 함께 도망치며 기존의 서사적 틀에서 벗어난다. (81화)

이러한 결말은 남성과의 혼인이나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귀결되는 전통적인 여성 서사구조에서 벗어나서, 여성 간의 연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결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설화와 뚜렷이 구별된다. 심청과 장 승상 부인의 결합은 단순히 전통 서사의 변형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가치관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과 결합하는 정형화된 결말에서 벗어나, 여성 서사 결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고전소설 <심청전>에서는 심청이 ‘구조자’로, 심 봉사는 ‘구조를 받는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여성이 남성(딸-아버지)을 구조하는 서사가 끝난 후, 남성(용왕)이 다시 구조자로 등장하는 서사로 이어진다. 즉 심청은 남성에게 구조를 받는 존재로 전환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더 유능하다는 관념에 부합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 이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할 능력이 있는 여성이더라도 결국 남성의 능력과 지위로 구조를 받는 자로 위치시키는 서사를 보여준다.

더불어 웹툰 <그녀의 심청>에는 남성 등장인물 모두를 악인으로 그리는 동시에 여성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어릴 때부터 심청을 도와주는 뱀덕

어미, 처음에는 다른 의도를 품고 있었지만 결국 심청의 구조자로 변하게 된 장 승상 부인 등이 있다. 이처럼 여성 캐릭터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통해 여성 간의 연대가 부각된다. 이는 여성 지위의 상승과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남성 주도인 서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여성 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는 전통적인 성 역할 분담을 깨뜨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돕는 여성의 집단적 힘을 보여준다.

### 2-3. '효도 규범'으로부터의 탈주

심청의 '효행 서사'도 웹툰에서 고전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된다. 웹툰 <그녀의 심청> 심청의 첫 등장 장면에서는 자신이 효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밝힌다. 1화에서 심청은 달을 향해 '내 소원은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것도, 남자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소원을 비는 장면이 제시된다. 이는 전통적인 효녀 심청의 모습과 뚜렷이 대조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장면은 심청의 내면적 갈등과 독립적인 사고를 드러낸다.

심청이 제물이 된 이유 역시 고전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다. 웹툰에서 심청은 아버지를 향한 효심으로,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기보다, 주변 사람과 자기의 삶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제물이 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심청이 단순히 희생적 효녀가 아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그려짐을 보여준다. 웹툰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심청이 제물이 된 이유는 장 승상 부인과 관련되어 있다. 장 승상 부인이 처음부터 심청에게 접근한 이

유는 자신을 대신해 제물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웹툰 제62화에서 심청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도 이를 감내한다. 이와 동시에, 몽은사 스님이 심 봉사를 강으로 밀어 떨어뜨린 뒤 다시 구해내는 사건이 발생한다. 몽은사 스님은 심 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알려주며 심 봉사를 설득한다. (63-64화) 심 봉사는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그 소식은 마을에 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청은 우연히 제물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삶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좌절 속에서 제물이 되기를 결심하였다.

아울러 웹툰에서 묘사된 심청에 대한 마을 사람의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웹툰 7화에서는 어린 심청에게 주변 사람들이 머리를 빗겨 주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들은 선행을 했다가 만족한 후 모두 떠나버린다. 한 번 선행을 베푼 후, 마음이 충족되자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심청에 대해 거들떠보질 않는다. 심청이 제물이 되기로 선택한 이후에야 마을 사람들은 다시 심청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를 ‘모범’, 혹은 ‘효녀’로 칭송한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효녀’는 단지 사람들이 희망하고, 상상하는 인물이며,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규범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허구적 이상과 가깝다. 즉, ‘효녀’란 실제 인물이라기보다, 사회가 요구하는 미덕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이며, 이는 특정한 사회적 기대 속에서 형성되고 소비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웹툰 <그녀의 심청>은 기존의 희생적이고 이상화된 효녀 심청의 모습으로부터 탈주하여, 심청을 주변 환경과 내면적 갈등 속에서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는 주체적인 인물로 재해석하고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단순히 ‘효녀’라는 관념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규칙을 부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심청 서사의 탈 전통적 변용과 현대적 해석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2-4. 전통적 권위 질서의 환멸

마지막으로 웹툰에서 전통적인 부권 권위주의 및 종교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웹툰에서 등장 남성 인물은 모두 악인으로 그려진다. 작가는 이러한 설정은 여성의 시각을 강조하여, 이야기를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좋은 남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sup>16)</sup>

고전소설 <심청전>과 이를 원형으로 각색한 다른 문화콘텐츠 등에서 심 봉사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일반적으로 이 인물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딸이 자신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진 인물로 묘사된다. 이는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상적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웹툰 <그녀의 심청>에서 심 봉사는 이기적이고, 자신의 사대부 출신 배경을 과시하며, 과거시험 합격을 통해 빈곤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기대에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한 약속 역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허언에 불과하며, 이러한 모습은 전통적 관념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는 실망스럽고 혐오스러운 남성 권위의 표상으로 묘사되며, 기존의 이상적인 아버지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등장한다.

또한, 작품에서 가족으로 등장한 장 승상 부인의 오라비는 심청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진다. 장 승상 부인이 나이 많은 장 승상과 혼인한 이유 오라비의 관직을 위

16) 이 내용은 웹툰 <그녀의 심청>의 중국어 버전인 <칭얼전(淸兒傳)>의 ‘후기’ 부분에 확인할 수 있다.

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시된다. 30화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장 승상 부인의 발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장 승상 부인인 심청의 아버지와 자신의 오라비를 비교하며, 그들의 '다정함'이 실제로는 "원망을 피하고 자 자기만족에 따라 베푸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작품은 가족애라는 전통적 정서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남성 인물의 이기적 행위와 그 내면에 자리한 문제성을 부각한다.

이 외에도 이 웹툰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악인은 몽은사 스님이다. 몽은사 스님은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자애롭고 엄숙하며, 수행자다운 덕망과 자비심을 가진 스님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인물이다. 고전 서사에 등장하는 스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이 웹툰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인물은 남성의 우월성을 끊임 없이 강조하고<sup>17)</sup>, 간사하며, 자비심이 전혀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모습은 불교 승려라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무너뜨린다. 이처럼 이 웹툰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중받고 숭배되던 남성 및 종교적 권위자가 부정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음을 묘사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웹툰에서는 전통적 남성 권위와 종교 권위를 환멸적으로 묘사했고, 전통적 권위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웹툰의 외전에서는 전통적 남성 주도의 권위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일례로 심청과 함께 배를 탄 사람이 돌아와서 용왕이 남자

17) 웹툰에서 몽은사 스님이 남성이 더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장면이 많다. 예를 들어, 그는 심청에게 "너는 여자로서 지을 수 없는 업을 가지고 있다.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면 업을 없애버릴 것이다."(1화)라고 말하며, 여성은 가치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웹툰 36화에서는 몽은사 스님이 심청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연지를 사용한 심청의 단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렇게 꾸며서 사내나 꼬드기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발언한다. 이 장면은 몽은사 스님이 평소에 보여주던 온화한 모습과는 다른 일면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서사 전개에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가 아니라 여자였다고 말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이는 남성이 주도하는 권력 체계에 대한 은유적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많은 전통 문학 작품에서 자연을 지배하고 물을 다스리는 신은 대개 남성으로 묘사되며, 이는 힘과 권위가 남성에게 귀속된다는 가부장적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용왕이 여성이라는 설정은 이러한 뿌리 깊은 관념을 전복시키며, 여성에게도 동등한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 3. 웹툰 <그녀의 심청> 댓글의 종류와 수용자의 인지적 성향 분석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웹툰 <그녀의 심청>은 고전소설 <심청전>의 서사를 배경으로 재창작된 작품이지만, 내용 전개 방식에서 전통 서사와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이어, 댓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전통 서사의 변용’에 대해 수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수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첫 화와 마지막 화를 포괄하여, 전통적 서사구조와의 이질성이 두드러지거나, 서사 전개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총 14개 회차<sup>18)</sup>의 댓글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앞에 2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1화, 3화, 4화, 7화, 27화, 30화, 36화, 63화, 64화, 67화, 81화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2화, 15화, 18화의 댓글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회차는 전체 서사 전개의 맥락에서 구조와 내용상으로 대표성을 지니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정되었다.

18) 본 연구에서는 웹툰 1화, 2화, 3화, 4화, 7화, 15화, 18화, 27화, 30화, 36화, 63화, 64화, 67화, 81화의 댓글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상 회차는 수용자의 높은 논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2화는 장 승상 부부의 결혼식을 다루며, 인물 소개와 서사 도입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심청, 장 승상 부인, 그리고 뽕덕어미에 대해 처음으로 평가를 내리는 장면도 있다. 이는 사회적 인식 구조와 인물에 대한 집단적 시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회차이며, 이후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에 서사적 기반을 마련하는 회차로 볼 수 있다. 15화에서는 심청이 새로운 외모로 등장하며, 이는 서사 전개에 뚜렷한 전환점을 마련된다. 수용자들도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표한다. 18화에서는 장 승상 부인이 열녀를 모방해 스스로 손을 베는 행위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며, 이 장면은 사회적 평가의 전환 과정을 드러난다.

이와 같이 선정된 회차는 모두 인물 평가와 사회적 인식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으로, 수용자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의미를 지닌다. 이상 선정된 회차를 중심으로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수용자의 수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4개 회차의 1,124개 댓글<sup>19)</sup>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회차 정보와 댓글 수는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회차	1화	2화	3화	4화	7화	15화	18화
제목	거렁뱅이	물 위에 핀 꽃	새 신부	둔갑한 여우	승상댁 방문(2)	다과	괴롭힘의 이유
댓글수	71	37	32	126	54	37	68
덧글수	15	8	5	5	0	1	2
총수	86	45	37	131	54	38	70

19) 본 연구는 2025년 2월 30일까지 등록된 댓글과 덧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회차	27화	30화	36화	63화	64화	67화	81화
제목	효녀 심청	비오는 날	공정한 판결	폭로	공양미 삼백 석	고별	끝맺는 이야기
댓글수	46	28	95	75	54	40	302
덧글수	6	4	4	4	0	1	4
총수	52	32	99	79	54	41	306
댓글 수(총): 1,065		덧글 수(총): 59			총수: 1,124		

<표 2> 댓글 및 덧글 수

이 연구에서는 주로 수용자가 고전소설에 대한 재해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차적으로 댓글을 취합하며 수용자 반응을 살펴보았으며, 선행 연구<sup>20)</sup>의 댓글 유형 구분 방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댓글을 분류하였다.

- ① 총평: 직관적 반응, 웹툰/그림에 대한 단평, 최고의 웹툰, 추천, 재미, 기대
- ② 등장인물 평가: 심청, 심 봉사, 몽은사 스님, 장 승상 부인, 뽕덕어미 등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sup>21)</sup>
- ③ 감정적 반응: 분노, 슬픔, 무서움, 싫어함, 공감, 감동, 실망, 감정 이입
- ④ 감상과 비평: 고전문학에 대한 재해석 및 비평, 성별인지에 대한 비평, 웹툰을 통해 현실에 대한 재고

20) 최기숙, 앞의 글, 316-317쪽.

21) 최기숙(2019)은 댓글에 대한 분류 유형 중 '등장인물 평가' 유형은 따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웹툰의 댓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웹툰은 인물 형상화 방식에서 전통 서사와 상당한 차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등록된 댓글에서 '등장인물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댓글 유형을 정리할 때 따로 '등장인물 평가'를 한 유형으로 정리했고, 이는 웹툰 <그녀의 심청>의 댓글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 ⑤ 지식과 성찰: 윤리, 도덕, 지식, 성찰, 판단
- ⑥ 댓글 평: 수용자 반응 비평, 댓글에 대한 논평, 댓글의 내용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설명
- ⑦ 기타: 콘텐츠와 무관한 내용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댓글에 대한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sup>22)</sup> 이 결과는 댓글과 덧글을 통합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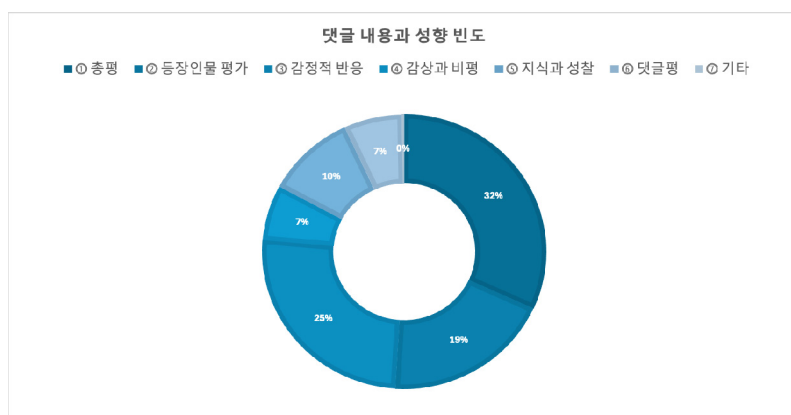
회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 ③	① + ④	① + ⑤	② + ③
1화	7	3	2	2	19	18	2	-	3	4	12
2화	19	3	-	1	1	11	-	-	-	-	4
3화	13	1	3	4	6	4	-	1	-	-	2
4화	6	10	1	3	9	11	1	-	-	-	70
7화	26	10	4	5	-	5	-	-	1	-	2
15화	13	2	8	3	3	3	-	-	-	-	-
18화	46	3	11	2	2	2	1	-	-	-	2
27화	10	-	5	6	3	5	-	-	1	-	14
30화	7	1	6	2	5	5	-	-	-	-	4
36화	11	2	9	2	10	5	-	-	-	-	58
63화	10	2	10	9	2	6	-	-	1	-	35
64화	16	-	4	-	5	5	-	2	-	-	18
67화	12	-	19	1	1	1	-	2	2	-	-
81화	222	-	16	8	3	5	-	22	11	10	2
총	418	37	98	48	69	86	4	27	19	14	223

22) 이 결과는 선행 연구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3차에 걸쳐 검토한 결과이다.

회차	② +	② +	③ +	④ +	④ +	⑤ +	①+ ②+ ③	②+ ③+ ⑤	②+ ④+ ⑤	총수
	④	⑤	⑤	⑤	⑥	⑥				
1화	1	2	6	1	2	1	1	-	-	86
2화	3	1	-	-	2	-	-	-	-	45
3화	-	-	2	-	-	1	-	-	-	37
4화	1	3	1	2	-	-	-	12	1	131
7화	-	-	-	1	-	-	-	-	-	54
15화	-	-	1	1	-	4	-	-	-	38
18화	-	1	-	-	-	-	-	-	-	70
27화	-	-	3	3	-	1	-	-	1	52
30화	-	-	-	1	-	1	-	-	-	32
36화	-	1	-	1	-	-	-	-	-	99
63화	-	-	3	1	-	-	-	-	-	79
64화	-	-	1	2	-	-	-	1	-	54
67화	-	-	1	2	-	-	-	-	-	41
81화	-	-	2	4	-	1	-	-	-	306
총	5	8	20	19	4	9	1	13	2	1,124

<표 3> 웹툰 <그녀의 심청>의 댓글 유형분석

위의 표에 의하여, 앞서 제시한 ① ~ ⑦번 댓글 분류 방식에 따라 재정리하였다. 하나의 댓글이 두 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한 경우, 해당 범주 각각에 1건씩 중복으로 계수하였다. 전체 댓글 내용과 성향 빈도는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웹툰 〈그녀의 심청〉의 댓글 내용과 성향 빈도

댓글과 댓글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 댓글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①번 ‘총평’으로 총 479개가 등록되었다. 그 뒤를 이어 ③번 ‘감정적 반응’(387개), ②번 ‘등장인물 평가’(289개)가 각각 2, 3순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⑤번 유형 ‘지식과 성찰’(154개), ⑥번 ‘댓글 평’(99개), ④번 ‘감상과 비평’(97개) 순으로 나타났다. ⑦번 ‘기타’는 4개로 가장 낮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⑦번 유형 댓글은 웹툰의 내용과의 관련성이 낮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①번부터 ⑥번까지의 유형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①번인 총평 유형의 댓글은 주로 작가에 대한 칭찬, 작품 구성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웹툰 추천, 그림이나 내용에 대한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1화 댓글에서는 다음 화에 대한 ‘기대’나 ‘호기심’에 대한 댓글 내용이 많다는 반면, 웹툰 1화에서 이러한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웹툰은 2020년에 완결된 작품으로, 많은 수용자

가 웹툰을 보기 전에 이미 작품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웹툰의 최종화인 81화에서 “명작이다.”, “여운이 남는다.”, “작가 님 감사합니다.”, “단행본을 살 것이다.”, “작품을 영상화하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웹툰에서 묘사한 전통 서사로부터 탈주한 심청의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고, 고전소설 <심청전>에 대한 재해석한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반응은 웹툰이 기존 고전 서사와 차별화된 현대적 가치와 서사를 제시하며, 수용자들에게 감정적 공감과 긍정적 평가를 끌어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화와 81화를 제외한 중간의 회차에서도 가끔 ‘최고의 웹툰’, ‘추천’과 같은 댓글을 나왔지만,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 그림과 내용에 대한 직관적 반응이다. 특히 웹툰의 시작인 1, 2, 3화에서 그림과 주인공의 의상은 중국풍 요소가 포함하고 있어, 일부 수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한국 고전소설인 <심청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국풍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한편, 81화를 제외한 ①번 유형의 총평 빈도는 나머지 회차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반전적인 서사가 포함된 18화에는 ‘경이’를 표하는 댓글이 많았다. 예를 들어 “어?”, “네?”, “무슨?”, “반전?”과 같은 직관적 반응을 표현하는 댓글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

둘째, ③번 감정적 반응 유형의 댓글에는 서사의 전개 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인공 심청의 삶에 동정을 표현하거나, 이야기 전개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67화에서 화원이 심청에게 초상화를 그리는 장면에서는, 심청의 외모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효녀’의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장 승상 부인과 심청의 이별 서사가 함께 전개되면서 이에 대해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이 많았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댓글에서 ②번 등장인물 평가와 ③번 감정적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심청, 장 승상 부인, 뽕덕어미 등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애정, 안타까움, 연민, 혹은 감정 이입과 같은 감정적 표현의 표출이다. 또 하나는 심 봉사와 몽은사 스님 등 남성 등장인물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표현하며, 그들의 퇴장을 기대하는 반응이 많다. 특히 웹툰 4화에서는 몽은사 스님과 마을 남성들이 장 승상 부인을 여우로 둔갑한 존재로 간주하며,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 원인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몽은사 스님은 여자는 자신의 ‘업’을 지닌 존재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4화 댓글에는 스님과 마을 남성들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많이 등록되었고, 수용자 대부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웹툰 중후반 회차의 댓글에서 아버지인 심 봉사의 탐욕스러움, 나태함, 과장된 언행 등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웹툰이 전통적인 남성 권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함에 따라, 이러한 남성 등장인물의 행위가 수용자들에게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댓글을 통해 수용자들이 전통 서사 속 등장인물의 정체성에 대해 재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는 남성 인물에 대한 고정된 성 역할과 전통적 관념에 대해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스님이라면 반드시 덕망 있는 존재인가?’, ‘아버지라면 반드시 자애로운 존재인가?’와 같은 관념에 대해 수용자가 재고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남성 전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몽은사 스님과 심 봉사와 같은 남성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비롯하여 혐오와 분노는 전통적인 남성 권위와 역할에 대해 수용자가 가진 문제의식을 드러

낸다. 이러한 댓글은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전통 성별 관념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⑤번 지식과 성찰 유형의 댓글은 주로 성별 고정관념, 전통과 현대의 충돌, 불교적 윤리 등의 문제에 대해 성찰적 태도를 보인다. 이 웹툰은 원작의 전통적인 서사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현대적 시각으로 상상하여 재구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용을 통해 수용자들은 현실 사회의 질서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실제로 댓글에서 “이거 현실이다.”, “너무 현실적이라 슬프다.”, “시대적 문제 너무 잘 찌다.”, “웹툰에서 힘들게 사는 심청이 얘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등 서사에 대한 성찰적 반응이 다수 나타난다.

이 외에도 성별과 종교 질서 성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댓글도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세기가 되어서야 여성들이 남성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물이나 아이 낳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남성은 기득권층이다.”, “여자로 태어나는 게 무슨 업이야”, “역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종교들도 사회상을 그래도 닮아있다. 성 평등한 종교가 없음”과 같은 직설적이고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용자들이 성별 질서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②, ③번 유형과 같이 남성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댓글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1,124개 댓글에서 “한남”인 표현은 19번이 나왔고, 해당 표현이 포함된 댓글 대부분은 남성 등장인물과 현실의 한국 남성 간 유사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댓글은 수용자가 고전 서사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현실 사회에 내재한 성별 질서와 남성 지배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⑥번 유형인 댓글 평에 속한 댓글은 대부분은 기존 댓글의 관점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15화의 한 댓글에

서 장 승상 부인을 ‘꽃뱀’이라고 평가했고, 이런 관점에 대해 반박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댓글의 질문에 대해 해명해 주는 댓글이 많다는 것이다. 1, 2, 3화에서 그림의 중국풍 표현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오면, 댓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몇몇 댓글이 등록돼 있다. 이는 댓글과 댓글을 통해 수용자들은 상호작용을 하며, 웹툰 서사에 대한 집단적 해석과 재구성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④번 감상과 비평 유형 댓글을 살펴볼 것이다. 이 유형의 댓글은 주로 고전 〈심청전〉에 대한 재고와, 다른 작품과의 비교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댓글에서 원작에 대해 비판하면서, 웹툰에 공감하는 내용의 댓글을 확인하였다. “항상 제물엔 아이, 여성(숫처녀) 환멸이 느껴졌었는데 각자 삶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고맙네요.”와 같은 댓글이 등록되어 있다. 이 댓글은 전통적 서사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작가의 해석에 대해서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 1화부터 수용자들은 전통 〈심청전〉의 불합리한 설정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이후 회차에서도 원작 서사구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는 댓글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웹툰을 읽는 과정에서 원작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 여성에 대한 기존 서사의 공식에 대한 환멸을 표현하고, 작가가 등장 인물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내는 결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댓글은 원작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난 이 웹툰의 서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대중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웹툰은 〈심청전〉의 원작이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댓글은 수용자가 이 웹툰을 단순히 원작의 변형으로 여기지 않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타 작품과 비교하는 댓글은 많지 않지만, 36화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언급하는 댓글이 있다. “82년생 김지영이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다. 세상이 저런 인간들로만 가득 찼다면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고, 여자들은 참정권조차 없으며, 부르주아들은 여전히 귀족들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있겠지”라는 댓글이 있다. 이 댓글에서는 여성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역사적 불평등 구조에 대한 재고와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수용자가 웹툰을 계기로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성찰적 사고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댓글 분석을 통해, 웹툰 <그녀의 심청>에 대한 댓글과 덧글은 단순한 감상이나 정보 전달을 넘어, 작품의 서사구조, 인물의 재해석, 전통 서사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수용자의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는 중요한 담론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용자들은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성별 질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현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고하는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댓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수용자가 타인의 해석을 비판하거나 보완하며, 집단적인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해석자이며, 웹툰이라는 장르를 통해 고전문학과 현대 사회의 접점을 탐색하고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용자가 전통 문학에 대한 성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댓글을 통해 본 수용자의 고전소설에 대한 성찰 양상

3장에서 웹툰 <그녀의 심청>의 댓글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수용자의 웹툰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많은 수용자가

웹툰을 통해 전통적인 ‘효녀 서사’와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댓글에 담긴 수용자의 성찰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이 웹툰을 통해서 수용자가 전통 서사를 개작한 작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수용자가 어떠한 성찰을 유발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웹툰은 단순히 환상적 서사만을 제공하는 오락 매체가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재현하고 동시대 대중과 긴밀히 상호작용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기존 매체와 달리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위에서 운영되며, 수용자들이 댓글, 별점, 조회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의 수용과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미디어적 특성을 보인다.<sup>23)</sup> 이러한 점에서 웹툰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해석하며 때로는 재구성하는’ 수용자의 참여가 서사적 의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웹툰 〈그녀의 심청〉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고전의 재해석이 대중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동시에,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사회적·윤리적 성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1. ‘성 고정관념’에 대한 성찰: 권위 질서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앞서 언급했듯이, 웹툰 〈그녀의 심청〉은 고전문학 작품인 〈심청전〉에 대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기존의 고전 서사로부터 탈주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남성 중심주의적 질서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3) 박범기, 「웹툰, 사회적인 것을 재현하는 대중매체?」, 『문화과학』 제85호, 문화과학사, 2016, 322-323쪽.

수용자는 이 웹툰을 통해 고전소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고정관념을 재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4-1-1. 여성에게 요구하는 모습에 대한 재고

댓글 살펴보기를 통해 수용자들이 전통적 서사에서의 고정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성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웹툰 <그녀의 심청>에서 그려진 심청의 모습은 기존 문화콘텐츠에 등장하는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효녀 이미지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서사적 설정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여성에게 기대되는 외적 이미지와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적인 문제의식을 생겼다.

웹툰 27화에서는 장 승상 부인의 도움으로 외모 변화를 겪은 심청이 마을에서 ‘효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내용이 있다. 장 승상 부인이 심청의 외모를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도록 꾸며주는 장면에서, 대부분의 수용자는 전통적 여성상의 기준과 여성상의 체현 방식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댓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여성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수용자가 재고하였다. [책도독(nove\*\*\*\*): 하아, 씩씩하다 씩씩해. 여성은 저렇게 ‘여성스러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어서 현실을 바꿔야 해][24], [EENN(bin)\*\*\*\*): 저렇게까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넘 슬프다.][25], [울랄라라(mali\*\*\*\*): 청이의 구걸에서 달라진 점이라고는 사회가 바라는 여성성을 갖추었다는 것뿐인데, 여성성이라는 사회가 정해준 모습을 따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구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26]

24) 27화: 효녀 심청, 2020.06.27. 22:22.

25) 27화: 효녀 심청, 2020.05.10. 22:15.

26) 27화: 효녀 심청, 2019.11.10. 10:41.

이러한 댓글 반응을 통해 수용자들이 심청의 이미지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자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해 온 ‘전통적 여성성’의 기준과 그 생존 전략으로서의 여성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저렇게 ‘여성스러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와 같은 표현은, 수용자가 이 장면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그를 둘러싼 젠더 규범에 대해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수용자들은 ‘전통 여성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이 여성 생존의 조건으로 내면화되는 현실에 대하여 슬픔과 씁쓸함 등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가 ‘여성이 사회가 요구하는 외모와 여성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청의 외모 재현과 관련된 댓글 중에는 현실에 대한 성찰도 담고 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시각장애가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심청은 과연 누구에게 단정하고 단아하게 꾸미는 법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기명명(chim\*\*\*\*):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 애 낳자마자 엄마 죽고 장님 아빠가 혼자 키웠는데 얌전하고 일 잘하고 깔끔하고 효성 깊은 심청이란 게 나올 수가 있나 뭐가 뭐지도 못 배우고 구걸만 했는데<sup>27)</sup>. 이와 같은 댓글은 기존의 고전소설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진 심청의 모습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통적 효녀 서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심청이 모든 덕목을 갖춘 ‘완벽한 효녀’로 묘사된 것은 당시 사회적 요구와 관념 아래 형성된 이상적 이미지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고전 서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시선을 담고 있다. 이런 댓글은 전통 서사 속 여성상

27) 27화: 효녀 심청, 2019.11.24. 13:06.

재현의 허구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부조리함을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1-2. 성별 상징성에 대한 재고

수용자는 성별 상징성에 대해 재고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툰에서 성별과 관련된 상징성 서사가 다수 등장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꽃이다.’<sup>28)</sup>, ‘여성의 업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sup>29)</sup>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수용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One4ALL (gusq\*\*\*\*) : 저 당시엔 여자를 꽃이라고 풀이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함. 선택권도 없고 오로지 식물처럼 가만히 앉아서 관상용이나 트로피 같은 느낌인 거. 최소한 요즘은 여자들이 꽃 되는 건 거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sup>30)</sup>, [조을 (wjds\*\*\*\*) : 명대사가 줄줄이 나오네요. 여자를 꽃에 비유해서 풀어낸 게, 마치 남성 우월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 같습니다...]<sup>31)</sup>, [시선 (moer\*\*\*\*) : 꽃에 대한 비유가 넘 씹쓸해여]<sup>32)</sup>와 같은 댓글이 등록되어 있다.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내용에 대해 수용자들은 전통적으로 미화된 여성상에 내재한 젠더 권력 구조를 성찰하고 있다. 댓글 반응에서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표현이 단순히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관상용으로 소비되는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28) 웹툰 3화에서 장 승상 부인이 결혼하는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은 신부의 머리를 꽃으로 장식해 주는 장면이 있다. 웹툰에서 이를 축복으로 간주하여, 신부도 꽃처럼 오래오래 아름답게 살 것을 희망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29) 웹툰에서 몽은사 스님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여성은 고용한 업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실한 기도와 공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30) 3화: 새 신부, 2019.10.20. 21:29.

31) 3화: 새 신부, 2019.07.28. 06:24.

32) 3화: 새 신부, 2019.07.08. 17:27.

인식이 드러난다. 일부 수용자들은 이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은유로 해석하며,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반응은 성별 상징적 언어를 통해 여성의 대상화와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편함과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수용자들이 텍스트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젠더 질서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석하며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여성의 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sd (zlov\*\*\*\*) : 아 뭐래냐... 여자라서 업이 많다니]33), [보라보라해(vick\*\*\*\*): 스님 전에도 여자로 태어나서 업보가 어찌구 저찌구 그러더니 미친 땡증이었네]34), [랑하(jiwa\*\*\*\*): 이상하다 돈 많은 남편 고른 덕은 신부 집안이 봤을 텐데 신부 아버지랑 신부 오빠가 쓸쓸히 누릴 테고 결정도 개네가 했을 텐데 ㅎㅎ 왜 아버지뻘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 신부의 잘못이고 업이니?]35) 등의 댓글에서는 ‘여자가 업이 많다’라는 언급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명하며, 그러한 담론은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지점을 지적한다. 특히 여성은 결혼이나 삶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사회 구조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여성 개인의 ‘업보’로 귀속시키는 논리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수용자들이 불교적 윤리 담론에 내재한 성별 권력 구조와 도덕적 책임의 편향적 분배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볼 때 주목할 것은 웹툰에서 ‘용왕이 남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sup>36)</sup> 수용자에게 용왕의 성별에

33) 1화: 거렁뱅이, 2022.02.07. 16:10.

34) 4화: 둔갑한 여우, 2021.10.14. 23:09.

35) 4화: 둔갑한 여우, 2020.02.08. 09:13.

대한 재고를 유발하였다. [아디티(Sa92\*\*\*\*): 자식 잡아먹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는 보상이랍시고 새 자식을 낳아 줄 처녀를 보내주겠다니... 용왕이 남자라고는 어떻게 장담하는 거고? 애초에 종이 다른데 신부가 될 수 있나?][37], [che(cher\*\*\*\*): 용왕은 역시 여자였구나...][38], [gaiee1(ganu\*\*\*\*): 마지막까지도 용왕이라서 남자일꺼란 편견 그래서 신부는 필요 없을 꺼라는 이미지를 깬 것이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39] 등 댓글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수용자가 전통적 남성 권위 질서와 남성 중심 상징체계에 대하여 성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고전 서사에서 용왕은 보통 지배적이고 권력화된 남성의 상징이었다. 이런 상징적 질서로 작동해 온 남성 권력 구조에 대한 수용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인물의 반전이라기보다, 전통 서사 속 성별 권위의 위계 구조에 대한 해체적 시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수용자들이 웹툰을 통해 젠더 권력과 그 상징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1-3. 고유 남녀 질서에 대한 재고

댓글 분석을 통해 수용자들이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의 남녀 질서에 대해 재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정관념에서 규정하는 여성의 모습, 그리고 남성이 늘 여성의 구조자인 역할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웹툰 1화의 장면 중 몽은사 스님이 심청에게 전한 “여성은 업을 소멸할 수 없다.”, 그리고 “공양을 통해 다음 생에 남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대사는 드러난 전통적 인식이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수용되

36) 용왕의 외모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81화에서 심청과 함께 배를 탄 선원의 대사를 통해 용왕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37) 81화: 끝맺는 이야기, 2019.11.21. 01:21.

38) 81화: 끝맺는 이야기, 2020.09.10. 23:18.

39) 81화: 끝맺는 이야기, 2019.07.22. 23:30.

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봄샘(yyy2\*\*\*\*): 미쳤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 뭘 개소리야... 와 저 승 진짜 맘에 안 들어.]<sup>40)</sup> 이와 같은 댓글에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sjh (sjh1\*\*\*\*): 사람들 다 자기들 하고싶은 데로 상상의 인물을 만드네]<sup>41)</sup>와 같은 댓글도 등록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가 전통적 성별 질서와 가치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과 모습만을 요구하는 전통적 관념이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 웹툰은 기존에 남성이 구조자로 고정되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 사이의 연대를 강조하는 작품으로, 수용자들이 이 점에 대해 공감을 많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런 댓글은 일반적으로 남성 인물에 대한 비판을 수반하고 있다. [양뜰로지 (tmdg\*\*\*\*): 어설프게 착한 남자가 나와서 구해주는 이야기가 끝까지 아니라서 더 감동이었어요..]<sup>42)</sup>와 같이 직접적으로 전통 서사에서 남성이 구조자로 등장해야 한다는 고정된 관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댓글도 있다. 이러한 댓글을 통해 전통 서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성별 질서에 대해 반성하는 동시에 일부 급진적이거나 혐오적인 발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웹툰 속 남성에 대한 묘사 방식은 성 고정관념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성을 더 촉진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작품 속 남성 캐릭터에 대해 강하게 혐오하는 정서를 드러내는 댓글도 있다. 특히, 일부 댓글에서는 남성 전체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다소 급진적인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잉(rkaa\*\*\*\*): 호랑이

40) 81화: 끝맺는 이야기, 2019.07.11. 00:33.

41) 27화: 효녀 심청, 2019.08.18. 23:14.

42) 81화: 끝맺는 이야기, 2019.07.23. 04:13.

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남자는 죽어서도 똥을 남기네요...][43)와 같은 댓글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비슷하게, ‘남자를 인당수에 던져야 한다.’, ‘이거 한남이다.’와 같이 남성 전체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도 많다.

이는 본 작품이 전통적인 서사에서 이상화된 남성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기존의 젠더 질서와 남성 중심의 서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끌어낸다 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댓글은 남성 권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현대적 맥락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 제시하였듯이 일부 댓글에서 남성 전체에 대한 공격하는 댓글은 남녀관계의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위협할 수 있다.

#### 4-2. 고전 서사에 대한 성찰: 효행 전설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 4-2-1. 심청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의 구원자이자 지극한 효심을 가진 효녀이다. 원작에서는 심청의 희생을 통해 유교적 가치인 ‘효’를 중심으로 한 윤리를 전달하며, 자식이 부모에게 져야 할 책임을 강조하였다. 심청의 모습은 전통 여성의 미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도덕적 교훈과 모범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청은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단순히 칭송받는 효의 상징을 넘어, 도덕적 모범으로 여겨지며, 사회 윤리를 구현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원작과 이전의 원작을 모티브로 개작한 작품에서는 심청 본인이 효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웹툰에서 심청은 아버지에 대한 봉양은 단순히 고정관념의 요구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웹툰에서 등장하는 심청은 자발

43) 64화: 공양미 삼백석, 2019.11.10. 19:29

적인 효녀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수용자도 이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댓글을 남겼다. [홍이(plan\*\*\*\*): 흠 그냥 힘들게 사는 심청이 얘기를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심청이 입장에서 풀어낸 작품 같은데. 재밌는 거 같음. 별점 10점 줘야겠다.]<sup>44)</sup>, [링가딩가(tkdd\*\*\*\*): 내가 칭이어도 마음이 답답할 듯]<sup>45)</sup> 등 댓글이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수용자는 심청의 입장으로 서사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이 마치 심청이 된 것처럼 감정 이입을 하기도 했다. 이는 수용자들이 단순히 전통적 효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청의 입장에서 서사를 재구성하고 감정적으로 이입하며 심청의 고통과 현실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전통 윤리인 ‘효’를 완전히 가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젠더 적·사회적 억압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들은 심청이라는 인물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고, 심청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관련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엘리 (ssem\*\*\*\*) : 너무 좋았어요...ㅠㅠ 좋은 작품 감사해요. 자아와 독립을 찾는 여성들의 이야기.. 심청전을 이렇게 멋지고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이야기로 해석해 주셔서 감사해요...]<sup>46)</sup>와 같은 댓글이 그 예이다. 이러한 댓글은 전통적으로 ‘효녀’로 고정되었던 심청의 모습을 재해석한 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심청이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희생적 존재가 아니라, 자아를 찾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된 점은 수용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묘사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가치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수용자의

44) 1화: 거렁뱅이, 2019.11.08. 06:50.

45) 1화: 거렁뱅이, 2019.07.08. 16:55.

46) 81화: 끝맺는 이야기, 2019.12.12. 11:52.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 4-2-2. 효행 서사에 대한 재고

웹툰에서는 ‘효녀’라는 개념을 재해석하는 동시에, 전통 효행 서사 자체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원작 <심청전>에서의 효행은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자기희생을 포함하며, 이는 전통 사회에서 모범적인 윤리로 찬양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극단적 효행이 개인의 삶과 주체성을 억압하는 부당한 윤리 규범으로 인식되며, 오늘날 사회에서는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가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웹툰을 통해 고전 효행 서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심청이 태생적으로 효녀’라는 전제가 명확히 부정되며, 심청이 ‘효녀’로 불리게 된 것은 사회적 담론과 외부 환경에 의해 구성된 결과임이 서사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27화에서 장 승상 부인을 통해 외모가 달라진 심청이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81화에서는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한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행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이를 계기로 심청은 마을에서 ‘효녀’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수용자들 역시 이러한 설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생각중 (thin\*\*\*\*): 소름... 효녀 심청이 완성된 순간을 이렇게 연출하시다니 작가님 지니어스..]47), [발광머리앤(bibl\*\*\*\*): 소름이네... 곁행실만으로 사람들 태도가 저렇게 바뀌고 청이를 거렁뱅이가 아니라 효녀로 여긴다는게...]48)와 같은 댓글은 ‘효’라는 도덕적 정체성이 본질이 아닌, 사회적 시선과 판단으로 부여된 결과임을 성찰한다.

47) 27화: 효녀 심청, 2019.07.18. 00:03.

48) 27화: 효녀 심청, 2019.09.01. 23:58.

또한, [vzv (gstv\*\*\*\*) : ...과연 지금까지 전해오는 효녀와 열녀 등의 구전 이야기 속에서 정말 그 여성의 이야기는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sup>49)</sup>와 같이, 웹툰에서 심청의 이야기가 본질적·자발적 효행 서사가 아니라, 외부 조건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수용자 또한 대체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효녀라는 여성상과 그 윤리적 역할이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성과 사회 구조 속에서 구성된 담론임을 인식하게 한다.

#### 4-2-3. 여성 간의 연대와 구조에 대한 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웹툰에서 여성은 서로의 구조자로 등장하며, 여성 간의 연대성을 강조한다. 심청은 뽕덕어미와 장 승상 부인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장 승상 부인을 도와주기도 했다. 이러한 설정은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흔히 나오는 남성이 여성의 구조자로 등장하는 서사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해 수용자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뜰로지 (tmdg\*\*\*\*) : 어설피게 착한 남자가 나와서 구해주는 이야기가 끝까지 아니라서 더 감동이었어요...]<sup>50)</sup>, [조율(Wjds\*\*\*\*): 지엘로 해석해도 좋고 그냥 여성들 간의 우정과 의리를 다른 작품으로 해석해도 좋고. 막연히 사랑만 있지 않고 사회 비판도 있는 좋은 작품이다]<sup>51)</sup>와 같은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댓글은 수용자들이 전통 서사에서 흔히 반복되어 온 '남성에 의한 여성 구원'의 구조에서 벗어나, 여성 인물 간의 상호 구조와 연대가 중심이 되는 서사 구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청이 뽕덕어미와 장

49) 81화: 끝맺는 이야기, 2019.12.07. 12:03.

50) 81화: 끝맺는 이야기, 2019.07.23. 04:13.

51) 7화: 승상댁 방문(2), 2019.07.28. 07:07.

승상 부인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그들을 도와주는 관계는, 여성들이 서로의 구원자로 기능하며 서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젠더 역할 배분을 뒤흔드는 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댓글을 남긴 수용자들이 이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며, 이는 수용자들이 현대적 시각으로 전통 서사에서 구현되는 남녀관계에 대해 재고하고, 남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여성 간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3. 현실에 대한 성찰: 현대적 시각에서 <심청전>에 대한 재고

이 웹툰은 고전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현실 사회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젠더 이슈를 통해 서사에 반영하며 성찰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1화에서는 아버지를 봉양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심청이 “이대로 몇 년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까”<sup>52)</sup>라고 말하며, 대리인으로 존재하는 장애인 가족의 고민과 삶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였다. 3화에서 꽃을 꺾어 신부의 머리에 꽂는 장면은 여성에 대한 장식적 시선과 결혼을 중심으로 한 여성 존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27화에서 심청이 여성성을 부여받으며 ‘효녀’가 되어가는 과정과 같이, 현실에서도 여성이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일정한 외형과 태도를 요구받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36화에서는 심청이 괴롭힘을 당한 뒤 이에 반격하지만, 스님이 ‘쌍방의 잘못’으로 규정하는 장면도 있다. 이는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현대 사회의 2차 가해 문제를 연상시키며, 작품이 단순한 고전의 반복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를 은유적으로

52) 이 내용은 1화에서 나온 심청의 대사이다.

로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녀의 심청〉은 고전문학으로 개작한 작품이지만, 현대 사회의 젠더, 계급, 도덕적 모순을 반영하며 수용자들이 동시대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수용자가 웹툰을 본 후 현실성을 느꼈다. [수진 (Woo0\*\*\*\*): 그래 이게 현실이지, 시대상 반영 완전 잘 돼 있네.]<sup>53)</sup>, [쁘리 (jini\*\*\*\*) : 너무 현실적이라서 슬프네요.]<sup>54)</sup>, [책도독 (nove\*\*\*\*): 하아, 씁쓸하다 씁쓸해...ㅠㅠ 여성은 저렇게 ‘여성스러워여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어서 현실을 바꿔야 해]<sup>55)</sup>, [홍기연(kiye\*\*\*\*): 극사실주의 현실 반영 200프로다ㅠㅠㅠㅠ 청이 자기 검열하는 거 너무 가슴 아파ㅠㅠ 마님도 안타깝지만 절대 지금 마님 방법으로는 차오르는 진흙탕을 이길 수가 없어ㅠㅠㅠㅠ]<sup>56)</sup> 등 댓글이 등록되어 있다. 81화의 댓글에서도 [smile(neuf\*\*\*\*): ...울컥하고 화나고 너무 현실과 닮아있어서 보기 괴로운 순간마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놓지 못하고 끝까지 집중력 있게 봤네요...]<sup>57)</sup>와 같은 댓글이 있다.

댓글을 통해 수용자는 웹툰의 내용과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과 연결 지어 성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감 있는 서사는 현대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현실 문제에 대한 감정적 공감과 비판적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여성 인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외모를 바꾸거나, 피해자임에도 도덕적 책임을 전가 받는 장면을 통해, 현

53) 1화: 거렁뱅이, 2023.11.17. 08:07.

54) 1화: 거렁뱅이, 2023.04.01. 02:35.

55) 27화: 효녀 심청, 2020.06.27. 22:22.

56) 36화: 공정한 판결, 2020.09.23. 12:06.

57) 81화: 끝맺는 이야기, 2019.10.10. 00:12.

실 속 여성의 생존 조건과 사회 구조의 부조리를 직시하게 된다. 이처럼 <그녀의 심청>은 전통 서사의 탈주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모순을 서사적 장치로,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 5. 맺음말

이 연구는 전통 효행 서사인 <심청전>을 원작으로 개작한 웹툰 <그녀의 심청>을 대상으로, 수용자가 이 웹툰을 통해 어떠한 성찰을 하는지, 특히 전통 질서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전소설을 원형으로 개작한 작품에서 포함된 고전과 현실의 연결성을 파악하였다.

웹툰 <그녀의 심청>은 전통 '효녀 서사'에 대해 재해석하는 전통적 효행 서사로부터의 탈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웹툰에서는 전통적 남성 권위와 고정된 성별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고전 서사와 차별화된 서사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고전 서사를 단순히 새롭게 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현실적 맥락과 긴밀히 연결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가 전통 서사를 개작한 웹툰 작품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어린 시절부터 <심청전>을 '효행의 모범 이야기'로 학습하며, 심청을 모범적 여성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웹툰 <그녀의 심청>과 같이 고전 서사를 현대적 시각으로 과감하게 재해석한 작품은 수용자들에게 고전을 다시 이해하고, 오늘날의 삶과 가치관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댓글 분석을 통하여 수용자가 작품을 통해 과거의 이상화된 윤리와 젠더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전통 서사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수용 양상은 고전이 더 이상 절대적인 도덕 모델이 아닌,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재해석되고 해체될 수 있는 문화 텍스트임을 보여주며, 고전 서사와 현대 사회의 연결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문화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회차를 대상으로 댓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 웹툰은 수용자들의 많은 성찰을 유발했고, 수용자들의 성 고정관념, 고전 서사의 전개 방식과 현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전통 효행 서사의 합리성에 대한 성찰을 일으켰다. 또한 수용자가 웹툰을 통해 자기의 감정적 공감과 감정적 변화를 촉발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수용자들은 단순히 고전 서사를 재해석하는 형태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젠더 규범, 도덕적 가치, 사회 구조 등을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고전을 비판적으로 읽고, 감정적으로 이입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고전을 다시 사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전통 서사 속 성별 질서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반응은 고전이 더 이상 절대적이고 모범적인 가치 체계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해체될 수 있는 열린 텍스트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은 <그녀의 심청>을 통해 고전 서사의 권위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며,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어서 고전을 이해하기를 시도하였다. 이는 고전과 현대 사회의 연결 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전통 서사가 어떻게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수용 양상은

웹툰이라는 장르가 단순한 오락 매체를 넘어, 고전과 현실을 매개하며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적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연구 목적과 범위의 제약으로 인해, 전체 댓글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수집·분석하기보다는, 대표성을 지닌 14개 회차를 선정하여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반응 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자 반응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고전 서사 개작 웹툰 전반에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작품과 장르를 비교·분석하여 고전 서사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수용자의 문화적 반응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Seri·비완, 웹툰〈그녀의 심청〉, (2019.07.08.-2020.06.17.), <https://series.naver.com/comic/detail.series?productNo=4257108>
- Seri·비완, 阿目 편, 웹툰〈清儿传(칭얼전)〉, (2018.08.26.-2020.06.22.), <https://www.kuaikanmanhua.com/web/topic/2322/>

### 2. 논문과 단행본

- 강진영,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 김강은, 「고소설 문화콘텐츠를 통해 본 여성서사의 새로운 가능성 - 웹툰 〈그녀의 심청〉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177-205쪽.
- 김선현, 「웹툰에 나타난 심청 서사의 재맥락화-웹툰 〈그녀의 심청〉과 〈삼작미인가〉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65-93쪽.
- 김수연, 「부녀서사의 전통과 현대 콘텐츠의 서사적 분기」, 『문학치료연구』 제61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129-166쪽.
- 김지령, 「심청 서사의 현대적 변용」,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남은경,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통해 본 한국인의 가치관」, 『동방학』 제51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4, 117-142쪽.
- 류명옥, 「웹툰에 나타난 고전 서사 활용의 양상과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54집, 동남어문학회, 2022, 61-83쪽.
- 박범기, 「웹툰, 사회적인 것을 재현하는 대중매체?」, 『문화과학』 제85호, 문화과학사, 2016, 320-331쪽.
- 박수진, 「영화 리뷰에 나타난 수용자 시각 분석과 고전문학교육에의 함의: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을 사례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2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939-956쪽.

- 서보영, 「웹툰 <그녀의 심청>의 고전소설 『심청전』 변용 양상과 고전 콘텐츠의 방향」, 『어문론총』 제88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35-64쪽.
- 이명현, 「웹툰 <도깨비 혼장>에 나타난 고전서사의 현대적 변용」, 『우리문학연구』 제67집, 우리문학회, 2020, 65-93쪽.
- 이지원, 「고전 기반 웹툰의 성장서사로서의 가능성 탐구: 단군신화 소재 웹툰 <바로잡는 순애보>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4권 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111-140쪽.
- 이채영, 「고전 소재 웹툰에 나타난 '춘향' 서사의 변주 양상과 의미 - 웹툰 <광한루 로맨스>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4권 1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87-99쪽.
- 장예준, 「웹툰(webtoon)에서의 고전 서사 활용 방안」, 『국제어문』 제75권, 국제어문학회, 2017, 395-428쪽.
- 장진엽, 「웹툰<가담항설>의 고전 시가/운문 활용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학논집』 제7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221-270쪽.
- 조도현, 「대중문화 코드로 본 <춘향전>의 현대적 변이」, 『한국언어문학』 제7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293-316쪽.
- 조리라, 「공존의 관점으로 바라본 고전문학 기반 웹툰의 매체 전환 양상과 의미 - 웹툰 <바로잡는 순애보>와 <간 떨어지는 동거>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5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795-804쪽.
- 최기숙, 「Daum 웹툰 <바리공주>를 통해 본 고전 기반 웹툰 콘텐츠의 다층적 대화 양상 - 서사구조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303-345쪽.
- 허윤,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여성 간 로맨스—비완seri, <그녀의 심청>(저스툰, 2017~2019)」, 『대중서사연구』 제26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20, 183-212쪽.

## Abstract

###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Tale of Shim Cheong* and Reader Responses in the Webtoon *Her Tale of Shim Chong* - Focusing on Analysis of Narrative Structure and Comments

Li, Huizhen(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webtoon *Her Tale of Shim Chong* by Seri (writer) and Biwan (illustrator), which concluded its run on Naver Series in June 2020, using a comment analysis approach to analyze reader responses and thoughts on how the narrative departs from traditional frameworks.

The webtoon *Her Tale of Shim Chong* can be regarded as a work that deliberately departs from a traditional narrative that originally reinforced gender stereotypes, male-centred storytelling, filial piety norms, and authoritarian structures. The way *Shim Chong* is depicted in the work rejects the conventional ideals of beauty, filial devotion, and femininity, instead transforming the narrative into one grounded in solidarity and autonomy among women. Through a disillusioned portrayal of religious and patriarchal authority, the work reveals a critical awareness of the traditional social order and attempts to reconstruct and expand gender-based narrative structure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audiences responded to the non-traditional narrative elements of *Her Tale of Shim Chong*, and their thoughts about these elements, through comment analysis. Readers expressed empathy and compassion toward female characters, and criticism or aversion toward male characters, thereby revealing a critical awareness of traditional gender-based authority. Readers were able to re-evaluate the ideology of classical narratives and extend this thought process toward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s present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analysis shows that readers did not merely consume this reimagining of a classic tale as a familiar story, but actively reconstructed its meaning by critically engaging with the issues of gender hierarchies, moral norms, and social structures prompted by the work. In particular, based on their awareness of the problematic nature of the idealised filial daughter figure and male-dominated authority depicted in classical literature, readers recognised that classics should be reinterpreted as cultural texts that must be reassessed according to era and context, rather than taken as absolute moral models. These audience reactions demonstrate that the genre known as webtoons has gone beyond mere entertainment to function as an effective cultural medium, linking classical narratives to contemporary discourse and fostering social dialogue about traditional values.

(Keywords: Her Tale of Shim Chong, The Tale of Shim Cheong, webtoon, gender stereotypes, filial piety narratives, female representation, comment analysis)

논문투고일 : 2025년 7월 27일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5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0일